

# 2002년 상반기 치안활동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김 성 희\*

## I. 머 리 말

1. 2002년 상반기 치안상황
2.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선정배경

## II. 2002년 경찰활동의 방향

- 『경찰청장 지휘지침』을 중심으로

1.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2. 국민만족 치안
3. 사회안정 정착
4. 역동적인 조직

## III. 2002년 상반기 치안성과 분석

1. 주요성과
2. 아쉬웠던 점
3. 반 응

## IV. 향후 과제

1. 기본이념의 지속적 강조
2. 지역치안책임자의 리더십 함양
3.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의 정립
4.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찰활동』 강화
5. 다가올 미래를 준비

## V. 맺 음 말

---

\* 경찰청 기획과(경감)

## I. 머리말

### 1. 2002년 상반기 치안상황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은 나라의 국운융성과 일류선진국가 도약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4대 과제·4대 행사, 국정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 중차대한 범국가적 현안들의 산적으로 연초부터 정부 전체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특히 상반기에 마무리된 월드컵의 경우 미국 등 대테러전쟁 참전국의 선수단, 관광객에 대한 테러가 우려되고, 관람객을 가장한 불법체류자·홀리건 입국 등 외국인 범죄의 증가, 월드컵을 불모로 한 노동계 등 이익집단의 과격투쟁까지 예상되는 등 복합적 치안수요로서 경찰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역시 월드컵기간과 겹치는 데다 여·야 정당이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감정 유발·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였고, 선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민원 해결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집단행동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부가적 치안수요 뿐만 아니라 민생치안이라는 기본 치안수요 또한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5년간 살인·강도·절도 등 주요 5대 범죄의 발생건수가 연평균 20.2%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연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금융권 강도사건과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 사이버범죄 등 국민 생활침해범죄의 급증으로 국민불안이 고조되었으며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어가는 범죄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치안 확보 요구는 높아만 갔다.

또한 공무원 노조,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재정통합 등 노사문제, 뉴라운드에 따른 쌀 수입, 구제역 등으로 인한 농촌문제, 남북관계의 고착과 북미, 북일관계의 경색으로 반미운동권의 활동이 격화되는 등 보수·진보세력간의 대립심화 문제와 같은 미해결 사회적 갈등요인들이 언제든지 현출될 수 있는 치안수요로 잠재되어 있었다.

요컨대 2002년의 상반기는 민생치안·안전월드컵·지방선거로 인하여 경찰 역사 이래 최대의 치안수요 폭주기간이자 경찰의 비중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 2.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선정배경

정부전체가 당면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에너지를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찰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뿐만 아니라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안전

확보, 양대 선거치안 등 치안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벤트성 행사 등은 자제하고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치안역량을 결집하여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그동안 개혁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율’이 강조되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대한 원칙과 책임의식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아래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중시하고 엄정한 기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찰기본업무’에 전체 경찰에너지를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의 창출없이 깨끗하고 당당한 ‘국민의 경찰’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도 힘들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역할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경찰지휘부의 고뇌의 결단이다.

이 글에서는 2002년 경찰활동의 방향을 설명하고 상반기 동안 치안성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평가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약간의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2002년 경찰활동의 방향 - 「경찰청장 지휘지침」을 중심으로

### 1.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이란 경찰관련 법령과 경찰헌장에 입각하여 개개 경찰관이 움직이는 정부가 되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일과 역할, 지켜야 할 원칙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친절·공정한 국민의 경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자는 의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류이거나 일류를 지향하는 기업들 사이에 ‘기본’이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Back to Basics)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책임’·‘경쟁력’ 등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예 :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정부중앙청사>)경찰조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의 결과이다.

즉 전 경찰관이 엄정한 공직기강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숨쉬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각오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올해의 슬로건 아래 ‘국민만족 치안’·‘사회안정 정착’·‘역동적인 조직’을 실천지침으로 하는 경찰청장 지휘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하달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경찰역량을 ‘경찰기본’에다 총집주하였다. 또한 그동안 ‘2002년 한국경찰 지표의 올바른 이해’라는 책자 배포와 더불어 수차례에 걸친 지휘서신과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 치안현장 점검, ‘청장과의 대화방’ 등의 기회를 통해 기본충실의 기준 및 방향을 제

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경찰의 ‘기본’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기본’

법과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통찰하고, 범죄와 무질서를 제압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강력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한다.

[표 1] ‘경찰기본’ 도출의 근거

法 令	憲 章
-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경찰사명)	- 경찰헌장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근면한 경찰 · 깨끗한 경찰 - 경찰서비스헌장

[표 2] 기본을 강조하는 기업체 예시

- ‘正道경영’(삼성) - ‘정직’, ‘소비자 밀착’, ‘경비절감’ 등 경영의 기본을 강조 (존슨앤존슨과 피자저등 美 대기업) - ‘기본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LG그룹) - ‘탄탄한 기본위에 디지털을 더합니다.’ (코오롱그룹) - ‘기본과 원칙, 선택과 집중.’ (POSCO)
---

2) 국민신뢰의 상징으로서의 ‘기본’

부정부패와의 고리 근절로 깨끗하고 투명한 경찰상을 정립하고, 상하간 신뢰와 정이 흐르는 조직문화 속에서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직장 풍토를 조성한다.

3) 인권수호의 최일선기관이자 봉사 경찰로서의 ‘기본’

모든 경찰작용에 있어 절차와 수단의 적법·공평·타당성 문제를 항시 염두에 두으로써 국민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인권경찰상을 지향하고, 어렵고 힘든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주는 등 꼭 필요한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과학적·효율적 치안활동을 위한 ‘기본’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개선·개발·혁신하여 고부가가치화·고능률화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업무 과학화·장비 현대화를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최대의 치안 성과를 거양한다.

5) 조직운영의 기본중의 기본 ‘경쟁’

공공행정 분야의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경

쟁’개념의 도입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대다수 선진국가의 일반적 추세로서 성과행정의 틀을 짜기 위해서는 조직내 경쟁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인력과 장비의 한계 속에서 경찰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기능별로 관리해 오고 있던 각종 통계 중에서 경찰이 꼭 해야만 하는 항목을 골라 치안성과를 월별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경찰활동의 지표로 삼는다.

단, 치안활동 종합평가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실적경쟁을 부추기는 등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방청별 순위는 표시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지방청장의 업무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또한 건수위주 단속, 마구잡이식 단속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질서위반 단속 건수, 교통위반단속 건수 등 실적경쟁을 유발하는 항목은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2. 국민만족 치안

국민만족 치안이란 경찰의 존립목적이자 최고의 가치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할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 조직폭력, 절도 등 서민생활침해범죄를 집중 소탕하고

불량식품, 환경파괴, 교통사고 등 반공익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반사회적 범죄를 척결한다. 또한 해킹, 사이버테러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첨단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검거체제를 강화하며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에 따라 테러, 홀리건 난동 등 각종 위협요소로부터의 안전확보 등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 3. 사회안정 정착

사회안정 정착은 사회생활의 기본인 법이 존중되고 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화로운 상태를 위해 성실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집단민원, 지역갈등 등 사회안정 저해요인에 대해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안정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모든 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관리하며 퇴폐업소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는 한편, 양대 선거사범 단속과 경비를 통한 선진선거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한다.

### 4. 역동적인 조직

역동적인 조직이란 대외적으로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대내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찰서 운영'과 같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한 눈에 띄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우유신문배달원, 24시 편의점 직원, 아파트 경비원 등을 치안보조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직원들이 신바람나는 분위기속에서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신상필벌 확행, 복지후생 확충, 직원 스트레스 관리 등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 Ⅲ. 2002년 상반기 치안성과 분석

### 1. 주요성과

#### 1) 창경이래 최대의 치안수요를 맞아 「총력근무체제」에 돌입

연초부터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좌표아래 세부실천방안을 마련, 그 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안전·질서월드컵과 공명한 지방선거를 위하여 지난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7일간을 「총력근무」기간으로 설정, 부족한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인원 227만 7천여명(월

드컵 191만 1천여명, 지방선거 36만 6천 여명)이라는 전 경찰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 뒷받침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있는 월드컵, 공명한 지방선거, 평온한 민생치안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2) 국가적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적 뒷받침

경찰청과 지방청에 「월드컵 치안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월드컵기획 전담부서 인원을 증원하는 등(월드컵 기획단 27명)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으로 안전월드컵, 질서월드컵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13번째 대표선수'라는 애칭까지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물샬 틈 없는' 대응태세로 단 1건의 테러나 홀리건 난동 없는 안전월드컵을 완벽하게 지원하였고, 모범적인 경호경비와 친절한 언행으로 봉사경찰로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 기여하였다.

특히 연 2,200만명이 운집한 길거리응원전, 불꽃축제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단속보다는 안내와 협조유도로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국민의 축제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자율질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 3) 질서있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지원

월드컵 기간중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그 어느 선거보다 확고한 중립속에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선거법규 숙지 및 단속요령 숙달로 선거사범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는 한편 적시성있는 단속요원 전진배치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98년 지방선거 대비 약 2.1배가 증가한 4,376건 6,230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월드컵과 겹쳐

[표 3] 월드컵 대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안전활동 강화로 대회안전 확보·경찰 대테러 역량 강화</li> <li>- 월드컵 교통관리대 및 외국인 교통사고 전담반 편성·운영</li> <li>- 경기장 등 대회경비 안전활동 전개</li> <li>- 홀리건 대책 마련 등 국제협력 체제 구축</li> <li>- 5.15~6.30까지 전체 경찰관의 휴가를 일시 중지하는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li> </ul>
--

동원경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사전 소요경력을 정밀분석하고, 필요한 예비비를 사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거경비가 되도록 하였다.

#### 4) 역동적, 과학적 치안활동으로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

월드컵·지방선거로 인한 사상 최대 치안 수요 속에서도 총력근무 등 역동적 경찰활동에 매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주요 7대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발생은 11.9%(266,444→234,850건)감소하고, 검거는 0.6%(199,372→198,105건)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월드컵 기간중(5.31~6.30)에는 총체적 방법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7대범죄 발생이 20.6%(45,481→36,092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월드컵 기간동안 창

궐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에 걸쳐 일제단속을 펼쳐 조폭 651명을 검거하고 이중 353명을 구속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아울러 국가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기본치안수요도 결코 해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체감치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절도 등 ‘국민생활침해사범 집중소탕 계획’을 추진하여 12,34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181명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행사동원에 따른 부족한 경력과 장비의 한계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체 15만 경찰의 역동적인 노력과 지문 자동검색시스템(AFIS) 및 족·윤적 시스템(FTIS)의 확대 보급, 수사종합 검색시스템 구축 등 과학적 치안활동 기반의 확립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표 4] 제3회 지방선거 경비결과

- 2002.5.28~6.14까지 전국 선거경비 상황실 운영(246개소), 24시간 선거경비 상황유지·전파·보고·처리
- 선거, 월드컵 동시대비 기간중 "乙"호 비상근무 실시, 지휘관·참모 22:00까지 정위치 근무 및 비번경찰관 50% 동원
  - ※ 선거·월드컵 동원경력 : 연 64만여명  
(일 가용경력 13만2천여명중 30%인 3만 8천여명 동원)
- 연설회, 인쇄소, 보관장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 5천여개소에 대해 연경력 36만6천여명 동원
  - ※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 비해 경비대상은 6,882개소(918%), 동원경력은 8만9천여명(32%)증가

5)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전개

지난해에 이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강력 전개하였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계도위주로 처리하되 음주,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요인행위는 집중단속하고, 안전띠착용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개선, 도로환경 정비와 더불어 신고보상금제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 16.1% (129,488→108,641건), 사망자 14.3% (3,877→3,323명)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로교통 속도규제 합리화 조치, 운전면허 학과시험 제도개선 및 면허증 발급 창구 일원화 등 교통행정을 개선하였고, 국민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인터넷 예약접수』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운전면허 출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일선 사고조사 업무량 감소 및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단순물피 교통사고조사 방법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6) 바로선 법질서 위에 사회안정 정착

국가적 행사 개최와 더불어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해를 맞아 무엇보다 국정안정과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사회안정에 최

선을 다하였다.

우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 등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집회시위 관리로 강력한 공권력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 중 전체 집회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2,014건), 불법시위는 63% (107건)감소하였으며 전체 집회시위 중 불법시위는 1.3%에 불과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월드컵 기간 중 집회시위는 전년 동기 간 대비 55%(724건), 불법시위는 86% (69건) 감소하여 월드컵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대회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기초질서 위반사범, 풍속업소 불법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였으며 ‘한총련’ 핵심세력 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 102명을 검거함으로써 사회안정구현에 기여하였다.

7)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마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동요없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경보직 인사지침’, ‘인사자기대신’, ‘경찰서-파출소간 교류인사’ 등 합리적 보직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화합과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안활동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을 향상시켰으며 벌과금 미납자 소재수사 지휘제도 폐지, 대용감방 이관 조치 등 타기관 협조업무를 이관시키고, 3교대제 정착을 위한 인력 증원, 교통범칙금의 교통안전시설 재원화 등 일선 근무자들이 기본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벌과금 미납자 소재수사 지휘제도 폐지

벌과금 미납자의 소재확인을 위해 검찰이 일선 파출소 등에 하달하는 벌과금 미납자 소재수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선 파출소 직원 1인당 연 40여 시간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고 소재수사 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 또한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② 대용감방 이관 조치

서산·여주 경찰서에서 운영하였던 대용감방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관조치함으로써 해당 경찰서는 유치장 사고부담 요인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민생치안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속초·영월서 등 잔여 14개 대용감방 또한 조속이관 추진 중에 있다.

③ 파출소 3교대제 정착을 위한 인력증원

파출소 3교대제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경찰관 320명 증원 및 부서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총 331명을 증원하여 파출소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외근근무가 되게 하였으며 추가 소요인력에 대해서도 증원 추진 중에 있다.

④ 교통범칙금의 교통안전시설 재원화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로 활용하고 있는 연간 2천억원의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아쉬웠던 점

월드컵 등 국가행사의 집중으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일부 직원들이 ‘기본에 충실하자’는 지휘지침을 소극적 해석하여 현실에

[표 5] 소재수사 제도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약 76만 5천건의 소재수사 업무감소 (전체 벌과금 업무의 54%)</li> <li>- 파출소별 월평균 약 40.4건 → 18.7건으로 감소</li> <li>- 파출소 직원 1인당 징수협조 업무 연간 73.2시간 → 33.7시간</li> </ul>
---

안주하는 한편, 지역치안실정에 부합하고 대내외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치안시책 개발 등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다소 부진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실시하는 치안활동 종합평가에 대해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과도하게 실적경쟁에 몰두함으로써 일선직원들의 부담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고, 꾸준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관들의 비리 연루로 국민불신과 경찰전체의 사기저하를 초래한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 도입, 공무원 조합 논의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이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 3. 반 응

#### 1) 내부 반응

전체적으로 경찰지휘부에서 정확한 치안환경 진단을 바탕으로 기본 중시의 치안정책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지휘지침 실천방안·경찰지표의 올바른 이해' 등 교양 자료를 통해 일선직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대부분 실천되었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지휘지침을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로 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활동방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85.8%,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9%로 다수의 경찰직 공무원들이 2002년 기본 지휘지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지휘지침의 기본 의미 인지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

[표 6] 2002년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지휘지침에 대한 평가

매우 적절하다	45.3	85.8%
다소 적절한 편이다	40.5	
그저 그렇다		10.5%
별로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1.9	2.9%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1.0	
무응답		0.7%

자료 : (주)인터넷메트릭스(2002). 『2002년 경찰관 직무 만족도 조사』

는 등 올해의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간부들은 그간 ‘자율’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기적으로 ‘기본’이 중요함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일선직원들도 외형적인 면모보다는 현실을 강조하여 실속있게 치안업무를 전개, 과시성 정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본’을 강조하다 보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책 추진이 소홀해 졌으며 ‘치안활동 종합평가’가 실적 경쟁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이 주5일 근무제·근로조건 개선 등 사회전반의 분위기에 소외되어 있는 데다, 지방선거와 월드컵 치안으로 오히려 근무여건은 어려워졌으나, 수당지

급·경비경찰관 처우(급식·대기장소) 등이 미흡하다는 피해의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직원들은 이제 근무도 기본대로, 처우도 일한만큼 대우받아야 하며 ‘치안활동 평가’는 실적 뿐 아니라 주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적경쟁의 폐단을 줄이는 한편, 언론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의연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업무 추진상 야기된 사소한 잘못은 포용해 줄 것을 요망하기도 하였다.

## 2) 외부 여론

밖으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고 맡은 임무를 조용히 추진, 치안활동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민생치안 확립’이므로, ‘기본에 충실한 경찰’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적 경쟁적 단속과 친절도 저

[표 7] 지휘지침의 기본 의미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3.4	↗	89.3%
어느정도 잘 알고 있다	55.9	↘	
보통이다			7.7%
잘 모르고 있다	1.7	↗	2.3%
전혀 모르고 있다	0.6	↘	
무응답			0.7%

자료 : (주)인터넷메트릭스(2002), 『2002년 경찰관 직무 만족도 조사』

하 등을 우려하기도 하였고, 언론은 수사·방법 등 현장의 움직임에 예전보다 폭넓게 다뤘는데 세계적 명물이 된 ‘길거리 응원’의 숨은 일꾼으로 경찰을 소개하는 등 “경찰이 치안업무에 충실, 사회안정을 무난히 유지하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교수 등 식자층도 ‘전시성 행사 지양’ 등 치안정책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일부는 ‘기본만 강조하다 보면 활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며 역동적 분위기를 위한 정책개발을 주문하였다.

요컨대 국민들은 민생치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되 공정성과 친절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경찰’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하였다.

#### IV. 향후 과제

##### 1. 기본이념의 지속적 강조

‘경찰기본에 충실’이라는 이념은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명실공히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계일류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영구불변의 경찰가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상당수 경찰관들은 리더가 바뀔 때 따라 그때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슬로건에 공감하면서도 지휘관이 교체될 경우 시들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생치안’, ‘사회안정’이라는 경찰본연의 기본업무와 ‘역동적인 조직운영’의 중요성은 비록 표현은 다를지라도 경찰이 존속하고 경찰발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경찰체제의 구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본’이념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전략개발과 지속적인 의식교육 필요

상부의 지시와 감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조직문화의 특성상 대다수 경찰관들은 ‘기본’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기본충실’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편하여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급자, 상급기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의 개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방식은 일방적 강의보다는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고 지식전달보다는 사례분석에 의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며 교육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

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업무추진의 생산성 향상과 일관성유지를 위해 치안일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편람 등 SOP를 내실있게 제작하여 배부하고 그 내용은 정기적으로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한다.

## 2) 제도개선 노력의 병행

조직내에 기본충실 문화를 조성하고 편더멘털이 튼튼한 건강한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태도나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만 요구해서는 한계가 있다. 직원 개개인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등 구조와 절차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의 경찰관들이 기본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지시·업무 등을 강력억제하고 변화된 치안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훈령·예규 등 법령을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 2. 지역치안책임자의 리더십 함양

무릇 조직체가 목표를 세워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화활동이 이루어지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휘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계급사회이자 15만 이라는 엄청난 수의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조직의 경우, 치안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몰

입하도록 도와주는 경찰경영자로서 지역치안책임자의 지휘활동(leading)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관리의 요소이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적합한 짜임새를 갖춘 조직이 있더라도 지휘활동을 통해 원활유 같은 촉진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높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조직경영자(CEO)의 지휘능력에 따라 성과물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자, 지휘관의 능력과 리더십에 따라 조직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능한 장관이 등장하면 해당부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나 반대로 능력이 의문시되는 장관이 등장하면 정책 하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면 바람직한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학자들이 바람직한 조직경영자의 리더십 모형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개발하고 있지만 최근 2002 한·일 월드컵이후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히딩크(Guus Hiddink) 전 대표팀 감독의 지도력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경영과 공공부문에서 '히딩크 리더십'을 접목시키려는 사회적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각급 경찰 지휘관들이 조직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 참고할만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냉철하고 솔직한 현실진단과 분석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경영의 출발점을 한국축구의 약점과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하는 데서 시작했다시피 지역치안책임자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관할구역의 치안환경과 휘하 경찰관·경찰조직의 문제점 및 역량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2) 장기적 시각에서 기본을 중시

개개 대표선수들이 전술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무엇보다 기초체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치밀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본을 다졌다시피 지역치안책임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민생치안’, ‘사회안정’ 등 경찰의 기본은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3)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증대는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

시합에 지더라도 강팀과 맞붙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프랑스, 영국 등 선진 강팀과 잦은 평가전을 개최하고, 큰 경기 출장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에게 주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감을 함양시켰듯이 부하 직원들에게 가치있고 중요도 높은 업무를 과감히 이양하여(직무확장과 직무충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4) 무한경쟁과 창의력을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

‘주전은 없다’는 원칙하에 선수 상호간 건설적 경쟁심을 조성함으로써 개인별 무한능력 발휘를 유도하고, 몸만 뛰지 말고 머리도 함께 땀 것과 상대편을 어떻게 격파할지 항상 생각하는 ‘창의적 플레이’를 요구하였다시피 실력·성실함·가능성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항상 연구하는 지식경찰상을 지향하여야 한다.

5) 팀워크를 강조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활력 증대

실수한 선수 개인을 야단치기보다 항상 거시적 시각에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팀 전체를 생각하고 시합중에는 선후배 선수 상호간 반말을 사용하게 하는 등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였다시피 경찰조직내부에서도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는 가족같은 직장 문화와 상하동료간 격의 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이 긴요하다.

6) 솔선수범하며 유머와 심리전으로 직원사기 증대

선수들과 함께 물건을 나르는 등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며 훈련장 밖에서의 선수들 사생활에 일질 관여치 않는 등 공과 私를 엄격히 구별하였듯이 지휘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직원 스트레스 해소에 주력하여야 한다.

### 3.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의 정립

경찰은 일반적인 조직과는 또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경찰의 조직문화를 선진화시키고 활력넘치는 근무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사는 부하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체득해야 할 것이고, 부하들은 냉소적인 자세를 버리고 사명감으로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며 명령일변도의 지휘자세를 버리고 ‘치안 현장체험’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숨쉬고 뛰는 지휘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며, 직원들은 관련분야의 경찰전문가가 되고자 하

상 학습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 간부들의 「감독순시」를 「현장지도」로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종래의 적발·징계위주보다 현장근무직원들의 직무교양 및 법집행 조언·애로사항 청취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의, 보고, 결재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직된 관료주의 문화를 쇠신함으로써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문서중심 업무지시 및 보고관행을 구두 또는 간이서식에 의한 「업무연락」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국정보고시스템·E-mail 중심의 전자정부 행정을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구현의 제도적 틀이 되어왔던 ‘치안활

[표 8] 우리 경찰의 시급한 과제

급여개선	13.1%
근무여건의 개선	11.3%
인원의 보강 및 보충	11.2%
공권력의 확립	8.2%
경찰 상호간의 갈등 해소	5.8%
승진제도의 개선	5.3%
경찰 내부정책에 대한 개선	5.1%
수사권의 독립성 보장	4.8%
경찰 스스로의 의식개혁	4.7%
기 타	4.8%
무응답	25.8%

자료 : (주)인터넷메트릭스(2002). 『2002년 경찰관 직무 만족도 조사』

동 종합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다듬고 알차게 운영하여 경찰행정의 바로미터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성원들이 활기차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기유발(motivation)을 통한 사기진작이 중요한데 특히 다음 3가지 방안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열악한 근무여건과 어려운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기본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및 현실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생치안확보와 근무조건개선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경찰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셋째,** 확고한 신상필벌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 4.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찰활동」 강화

‘민생치안’, ‘사회안정’이라는 경찰의 기본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수단으로서 ‘역동적 경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수치안과 체감치안의 괴리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지도록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틀이 요구된다. 더구나 국가적 대사로 치안부담이 쏟아졌던 상반기와는 달리 다소나마 경찰력 운용의 여유가 기대되는 시기에는 종래의

‘消極的 基本’개념을 ‘積極的 基本’으로 확장하여 현장근무자가 공감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안시책을 개발하고, 경찰의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지는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표 9]는 9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역동적 경찰활동」 추진과제로서 지역치안책임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의 목표는 ‘민생치안’, ‘사회안정’ 등 경찰의 기본임을 명심하여 무리한 과제선정과 경쟁으로 일선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유발하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함께하는 치안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찰은 사회의 구성요소이고 경찰관은 지역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지역사회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의 당면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범죄신고 활성화,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금융기관·현금다액취급업소 등 민간 자위방범 역량을 제고시켜나가는 한편 시민경찰학교, 지역방법세미나·공청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경찰운영의 패러다임으

로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5. 다가올 미래를 준비

‘경찰기본’의 강조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회피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치안환경속에서 ‘기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의 변동과 그동안 경찰역사에 대한 면밀한 성찰을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

측하고,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치안전략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숙원사업 등 경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와 영원한 숙제인 인력증원, 경찰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며 현장치안역량 극대화를 위한 조직·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 역시 하루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및 ‘공무원조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

[표 9] 『역동적 경찰활동』 추진과제

대 과 제	중점 실천과제
① ‘움직이는 경찰서’ 운영	① 방순대 등 기동대 취약지역 집중투입
	② 유해업소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③ 112타격대 취약지역 방범활동 투입
	④ F.T.X 체계 상시화
② 다중폭력 진압체제 강화	⑤ 패싸움(집단폭력) 진압태세 확립
③ 생활주변 ‘안심치안’ 활동	⑥ 테마별 기획수사 강화
	⑦ 주택가 공원 및 학원주변 순찰활동 강화
	⑧ 심야 폭주족등 단속 강화
	⑨ 주기적인 일제검문검색 실시
④ 국민의 속마음을 읽는 교통관리	⑩ 『끼어들기』·『교차로 진입위반』 집중단속
	⑪ 정체지역 해소를 위한 『파출소 번개싸이카』 운영
⑤ ‘찾아가는 경찰서’ 운영	⑫ 지역애로사항 해결, 고소·고발 등 출장접수
	⑬ 길거리 방범공청회, 여성청소년 상담
⑥ 일선현장 체험	⑭ 경찰청·지방청과 일선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까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상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조직내 상하동료간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형성노력을 한순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 V. 맺 음 말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조직의 목표(objective)는 그 조직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 즉 사명(mission)과 그 해의 내부적·외부적 환경분석을 토대로 하여 설정된다. 조직의 존재가치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내부의 역량과 외부환경을 정확히 인식하여 반영함으로써 1년 동안의 업무방향이 설정되는 것이다.

경찰 또한 올해 초, 2002년 치안행정의 전반적인 운용방향과 역점 추진시책을 담은 '기본지침서'로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명인식과 환경분석이라는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국민만족 치안', '사회안정 정착',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치안정책의 추진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단 국가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와 예산규모를 논하지 않더라도 한국경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음은 대다수가 동감하고 있다.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 지방선거와 대선 등 산적한 치안수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치안과제를 개발한다거나 전시성 이벤트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비생산적임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2002년이 우리나라의 국운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해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월드컵 등 주요 국가행사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긴급하며 이는 곧 국민생활의 안전판이자 사회안정의 버팀목으로서 경찰역할의 중요성과 직결된다.

경찰은 이러한 치안환경분석을 기초로 국민이 만족할 수준의 치안수준 확보와 사회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열과 성을 다해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실천방안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비록 상반기동안의 성과평가로 한정하였지만 월드컵, 지방선거와 민생치안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치안수요폭주를 「총력근무체제」 돌입 등 지혜를 발휘하여 훌륭하게 소화해 낸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이자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획득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안 게임·대선 등 나머지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2002년은 국가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찰차원에서도 그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어느 시기, 어느 경찰관서에서든

업무방향을 설정하거나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사명(mission)에 기초한 『경찰기본』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됨을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민생치안, 사회안정이라는 경찰의 기본이 훼손되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족한 경찰자원을 탄력있게 운용하는 지역치안책임자의 리더십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획조정부서로서 경찰청과 각 지방청의 기능도 치안현장의 일선직원들이 본연의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시책과 법령을 개선하고, 기본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제도화하

는 한편(例 : 민·경협력치안의 방향을 지역주민과의 우호증진으로부터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로 명확히 전환) 위 아래 모두로부터 경찰의 기본에 역점을 두는 태도와 행동을 내면화·체질화함으로써 명실공히 ‘기본중시 조직문화’를 정립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응하되 지속적으로 『기본』에 충실함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경찰의 존립목적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발전을 앞당기는 첩경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